

해외유학은 발전의 자극제

박 영 준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1. 머리말

유학이란 자기의 고향을 떠나와 공부하는 것을 통칭해서 이르는 말이다. 필자가 고등학교를 서울에서 다니기 위해서 부모님 곁을 떠날 때도 유학하러 간다고 했다. 한자로 국내에서 하는 유학에는 遊자를 쓰고, 외국 유학에는 留자를 쓴다고 배웠다. 당시에는 외국 유학은 그야말로 특수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요즘 유학은 매우 보편적인 일로 여겨질 만큼 많은 사람들이 외국 유학을 간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그래서 유학으로 드는 비용이 과도한 외화유출의 요인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유학은 선택의 문제처럼 보인다. 어디서 공부하는 것이 투자에 비해서 가

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의해서 말이다. 같은 등록금을 내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유학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투자대비 교육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해외유학을 가장 현명하게 선택하게 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국민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고, 국민이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여, 모두 타국에서 교육받으려고 한다면 이는 개인의 선택이기 전에 국가적인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국가의 이념을 구현하도록 교육목표와 교육체제를 정립한 다음, 국민에게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민들이 이러한 교육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는 국가의 경쟁력에

문제점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외국 교육과 비교하여 한국 교육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공계 대학원 유학에 초점을 맞추어 해외 유학에서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잃는 것을 설명한 후 결론을 맺을까 한다.

2. 한국 교육의 특징

먼저 해외 유학을 선택하는 유형을 조망함으로써 한국 교육의 특징을 조망할 수 있다. 첫째, 한국 교육의 특징은 피교육자의 평균을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전체 학력 평균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책의 중심이 유지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 전체 교육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교육투자가 현저히 낮은 현실을 고려하면, 투자에 비해서 국민 전체의 수준을 올리는 데 가장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을 운영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시스템은 평균을 벗어난 편차(아주 뛰어난 학생, 그리고 못한 학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경직된 시스템을 결과로 낳았다. 대학원 이전 유학을 지칭하는 조기유학을 예로 들어보자. 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중·고교 교육과정에 적응하지 못해서 외국 유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한국 교육이 평균에 못 미치는 학생들에 대해서 적절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교육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외국(여기에서는 주로 교육 선진국을 가리킴)에서 자기 나라의 중·고교 교육과정에 적응하지 못해서 다른 나라의 학교를 선택

하는 경우는 드물다. 우리나라의 고교 공부는 대학입시라는 목표 지향적으로 되어 있으며, 이 대열에서 이탈하는 학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 외국 유학을 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이러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다른 선택 기회(해외 유학)를 가지지 못하는 더 많은 학생이 있다는 점이다. 과도하게 평균을 중요시하고 이로부터의 편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직된 교육자와 사회 분위기가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교육정책은 전체의 평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되, 평균 밖에 대한 교육 서비스에도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특징은 교육을 짧은 시간에 끝내는 일종의 단기 투자로 생각하는 경향이다. 그리고 교육내용보다는 그 교육의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교육의 결과는 단순히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가로 나타난다고 믿는 것이다. 이러한 집착이 다른 가치에 우선해서 입학에 투자함으로써 일종의 국민적 합의를 모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던 하였다. 일단 좋은 대학을 졸업하면 생존 가능성이 높은 사회, 각종 국가 시험에 만 합격하면 평생이 보장되는 확률이 높은 사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는 미래에 경쟁력이 없는 사회이다. 계속 변신하고 발전하려는 동기 부여가 적은 사람으로 교육시킴으로써, 결국 국제 경쟁력이 부족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학문의 질적 수

준을 제고하기보다는 명성을 얻고자 해외 유학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3. 해외 유학에서 얻는 것

유학은 대학 개방의 한 가지 유형이다. 한국 대학의 학문적 수준이 아주 높아져 외국에서 배울 것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외국 유학은 계속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대학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방하고, 이에 의해서 평가되고 자극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 유학생은 국내 대학에 대해 자극제 역할을 해준다.

둘째, 사회가 다양화되기 위해서는 외국 생활 경험이 중요하다. 각 사회는 사회대로 논리와 분위기가 있다. 비록 개인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있지만, 개개인에게서 발견하지 못하는 사회의 특징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일본 사람은 개인적으로 사귀면 매우 친절하고 유연한 사람들이지만, 사회를 이루면 배타적인 면이 강하다고 한다. 한국 사람이 외국에 가면 질서를 잘 지킨다. 이는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것이 개인의 특징이라기보다 사회의 특징임을 나타내는 사례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의 특징은 외국 사회를 경험하지 않고는 비교하기 힘들며, 한 사회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외국 유학에서 배우는 경험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해외 유학이 외국 사람, 외국 사회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외국 유학으로 그 분야의 인적 자원을 알게 되며, 이 사람들이 앞으로 직업사회에서 일할 때 도움이 되는 중요한 환경요인이 된다. 특히 국제화 사회에서 이러한

네트워크 형성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4. 해외 유학에서 경계해야 할 것

해외 유학에는 그 장점만큼 경계해야 할 부분도 있다. 첫째, 국내 대학의 인재 유출로 인한 지식 축적의 어려움이다. 대학의 발전은 젊은 인재들의 연구 성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특히 이공계 대학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사실 미국 대학이 강한 이유 중 하나는 최고로 우수한 세계의 젊은이들을 끌어들이어 연구하게 함으로써, 대학에서 지식을 축적하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석·박사과정에서 가장 창의적인 학문적 발전을 이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수한 학생이 과도하게 외국 대학으로 빠져나가면, 국내 대학이 발전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둘째, 외국 유학에서 배우는 학문이 외국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인 경우가 많아 국내에서 필요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대학에서는 지역 특성상 지진 연구가 활발하나, 한국에서는 비교적 이 분야에 대한 연구 수요가 적다. 이와 같이 외국 유학자가 과도하게 많은 경우, 국내 대학의 학문 분야 및 성격이 외국요구에 의해서 맹목적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다.

셋째, 조기 유학에 주로 해당되는 경우이지만, 한국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기 전에 외국 문화를 맹목적으로 선호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인생관과 국가관이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배우는 교양과목 등에서 형성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5. 맺는 말

앞에서 외국 유학에 대한 장·단점을 논의하였다. 그런데 장점이 곧 단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곧 장점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강해져야 한다. 교육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교육의 표준 수준을 높이는 것 외에 편차가 큰 집단에 대해서도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가져야 한다. 외국 유학은 단기적으로 이러한 집단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장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국민을 교육시키는 것이 국가 의무임을 생각할 때, 궁극적으로 국민 교육을 외국 유학에 맡길 수는 없다.

진정한 선진국은 외국 학문을 들여다가 가르치는 정보 소비국에서 학문과 지식을 창조하여 외국에 수출하는 정보 생산국이 됨으로써 가능하다. 외국 유학은 이러한 선진국으로 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유학은 우리 대학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자극제로서, 외국으로 떠나는 유학생과 한국으로 오는 유학생 비율이 비슷한 호혜적 개념으로 변해야 될 것이다. ■

박영준 /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며 동 대학 반도체공동연구소장을 지냈고, 해군사관학교 교관과 IBM 및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저서로 "VLSI 소자이론"과 반도체 소자이론 및 제작에 관한 논문 40여 편을 발표하였다.